

칼럼 Column

미래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역할



김 압
한국의학도서관협회장
kmla@kmla.or.kr

과거 종이가 발명되면서 정보의 보관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도서관이라는 시설이 등장한 이래 도서관의 시설과 설비, 그리고 각종 정보를 관리해 오던 사서들에게 역사의 흐름은 때때로 변화를 요구해 왔다.

그 첫 번째가 인쇄술의 발달이라 볼 수 있으며, 과거 필사를 위주로 하던 사서의 역할이 인쇄술의 발달에 의해 사라지게 되면서 사서들에게는 존재에 대한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서들은 정보환경에 맞는 업무를 창출하였으며, 도서관의 기능을 보전에서 열람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사서의 역할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였다.

그 후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전자정보환경의 변화는 사서들에게 다시 한 번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는 두 번째 시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20세기 후반부터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로 인하여 웹 자원이 늘어나면서 전자정보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자정보환경은 사서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두 번째 변신이 필요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항상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의학 분야에 있어 전자정보의 확산은 다른 학문들에 비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특성으로 의학의 경우 이용자들은 각 종 정보들을 프린트물보다는 인터넷 환경을 통해 직접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고, 경영진에서는 프린트정보의 감소를 사서의 업무량 감소로 보는 경향마저 있기도 하지만, 정작 의학사서들은 '정보의 남발'이라 일컬을 만큼 급증하고 있는 전자정보들을 다루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현장에서 일하는 의학사서들의 경우 정보의 비중이 프린트에서 전자로 옮겨가면서, 분류, 편목, 배열, 대출 등 offline에서 일어나는 전통적 도서관의 업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들이 on-line상에서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하는 또 다른 업무가 주어졌다. 이와 같이 전자정보로 인한 정보환경의 변화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사업을 보다 전문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학도서관협회는 1968년 가톨릭의대, 고려의대, 서울의대, 연세의대 등의 4개 기관의 의학도서관들이 의학정보를 공유하

는 방편으로 발족하여 상호대차를 시행함으로써 태동되었다. 그 당시에는 고가의 학술잡지를 이용하는 것이 큰 과제였으며, 그 방편으로 시행되었던 상호대차는 당시 국내 도서관계에서 주목받았던 서비스였다. 최초 상호대차 시스템은 학술잡지 소장처를 확인하도록 '의학관계잡지 종합목록'을 매년 발행하여 우편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제공받는 아날로그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당시에는 매우 유용한 정보 공유의 수단이었다.

그 후 인터넷의 보급에서 비롯된 정보환경의 변화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사업도 다변화하게 하였다. 왜냐하면 의학도서관의 정보형태가 주로 전자저널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따라서 사서들의 업무도 시대에 맞는 급격한 변화를 요하였기 때문이다. 그 한 예로서 프린트 형태였던 '의학관계잡지 종합목록'을 디지털화하였으며, 상호대차 프로그램도 전산화하여 MEDLIS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전문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사서'를 제도화하였는데, 이 제도는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서정책을 위하여 의학 DB에 대한 컨소시엄을 주관하여 회원들의 수서를 돕고 있다.

특히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회원들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2006년 협의회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회원들의 의견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학사서제도, 의학 DB 컨소시엄, 전문적인 의학지식과 문헌정보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구상하고 계획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협의회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의학사서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기관 내에서의 사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제40회 창립기념일을 계기로 아래와 같은 비전을 수립한 바 있다.

I. 의학정보의 조직적·체계적 DB구축

- 국내 의학정보 생산자들과의 협력체제 수립
- 국내소장도서 의학정보 통합 DB구축 → 프린트, 전자, CD, DVD, WEB DB 등
ex) 단행본 : 한의도협 회원 소장 5,153,406권 (2005. 10 통계)

II. 의학정보의 전문 지식인 양성

- 의학사서제도 활성화 → MeSH, 의학용어, 전문 Web DB 숙지를 위한 교육
- 컴퓨터공학, 사서업무 자동화에 대한 교육 강화
- 사서, 정보전문가, 의료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

III. 국내의학도서관 협력 Network 구축

- 의학정보의 접근, 입수에 대한 평등화 (지부 활성화)
- 정보의 접근점이 없는 회원, 부속병원, 보건소 등 약 50,000여 기관에 대해 정보제공을 제도화 → 개인 회원제도 홍보
- 국내 의학도서관의 단일화된 LAS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내소장자료 공유

IV.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 기능 강화

끝으로 21세기는 모든 인프라가 넘치고 넘치는 물질과잉시대라 말할 수 있으며, 이는 넘쳐나는 인프라를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된 시대이기도 함을 의미한다. 특히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의 사서들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유통을 위해 충분한 정보의 제공 뿐 아니라 때로는 정보를 통제할 필요성마저 있다. 이를 위해서 의학사서는 의학정보를 끝없이 원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을 높여야 하며, 결국 의학지식과 문헌정보지식을 겸비한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

앞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는 현실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우리 회원들이 각 기관의 연구와 진료를 돕는데 주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의학사서들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의학 발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